



(주)체리부로, 1년 9개월만에 화의 종결

국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가
가장 큰 원동력...
올해 힘찬 날개짓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년전인 2004년 1월 초, 2003년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소식이 뜬해질 무렵 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마치 국내 상황인양 확대 해석하여 앞다투어 내보내기 시작했고 이 뉴스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국민들은 차츰차츰 닭고기를 멀리 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국내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와 무관하며, 먹어도 전혀 무해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요 일간지에 홍보했으나, 이미 떠나버린 소비자들의 관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점점 더 외면했고, 업계 일각에서는 그칠지 모르고 하락하는 닭값과 소비감소로 '이러다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형 소매점주의 자살 보도와 폐점 등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업계 3위의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는 장기불황 속의 경영난 악화와 AI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2005년 2월 10일 화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4년 5월 3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를 받은 체리부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보고 의무면제승인(화의종결)'을 받았다. 체리부호가 이렇게 단 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은 타 산업에서 조차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역사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가와 협력업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궈낸 값진 결실

체리부호가 이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계약사육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화의 신청 전날인 2004년 2월 9일, 김인식 회장은 전 계약사육 농장주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고, 자신만 살아남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약 50억원 상당의 개인 소유인 처갓집 양념통닭 지분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에 체리부로사육농가협의회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온 김인식 회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정상출하를 주저하는 농가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으며, 충청북도청을 찾아가 체리부로의 회생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때마침 국내 AI 발생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산감축과 아울러 미국과 태국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수입국에서의 AI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국에서 범국민적인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이 활발히 전개돼 닭고기 소비 증가와 더불어 상당 기간동안 닭값이 고공행진을 한 점도 체리부호가 회생할 수 있었던 요인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인식 회장은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을 경주했다.

화의 이후 소비촉진 운동의 영향으로 닭고기 소비가 활성화되어 육계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기존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생계를 D/C해서 판매하는 방식에서 D/C 없는 판매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때문에 많은 거래처들이 떨어져 갔지만 김인식 회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이 영업방식을 고수했다.

그리고, 냉동 가공품 중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제품은 과감히 생산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군납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해 '비수익 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도계량은 1일 10만수에서 8만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영방침으로 체리부로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2003년보다 약 100억원 가량 준 1,100억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10억원대의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의 후 더욱 단단해진 경영구조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화의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농가 사육비 30억원을 화의 개시 1년도 채 안돼 모두 지급했으며, 당초 화의채권자 집회에서 '영업 상황이 호전되면 화의 채권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권금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체리부로는 지난 2004년 5월, 화의 인가 당시의 상거래 채무 150억원을 전액 변제하는 한편, 금융권 채무 300여억원 가운데 200여억원을 상환하고 100여억원을 정상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

이는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감축 및 자산매각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재조정, 생산과 상거래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얻은 점에 있어 더욱 값진 것이라는 김인식 회장의 말이다.

실제 200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체리부로는

화의 개시년도(2004년) 부채비율이 1,039% 상태에서 2005년 말 기준 88.6%까지 낮아지는 등 제반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현재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량기업으로 재탄생됐다.

이 과정에서 (주)도드람B&F의 참여를 비롯한 유상증자로 더욱 확고한 내부적 경영 안정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날개짓

체리부로는 이러한 안정적인 경영체제 및 경쟁력 강화를 발판으로 금년 6월 충북 진천 공장에 1,930평의 부지에 150억원을 투자, 시간당 8천수의 도계가 가능한 2개의 최신식 도계라인을 증설,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가동되는 공장의 설비는 모두 자동화로서 국내 최대 길이(1.9km)의 에어칠링 시스템을 비롯 국내 최초로 사진 판독기능을 갖춰 불량품 개수와 원인을 분석하는 '개체별 사진 판독 시스템'을 도입, 농가에는 품질 관리에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인식 회장은 "체리부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준 농가협의회 회원들과 협력업체, 체리부로 전 임직원, 그리고 AI 발생 직후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첨단설비를 갖춘 신 공장 가동을 계기로 그동안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품질 좋은 닭고기로 보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극적인 화의 종료를 이뤄낸 체리부로의 힘찬 홍보엔 앞으로 '전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